

환상의 '축구 잔치' 즐길 준비 됐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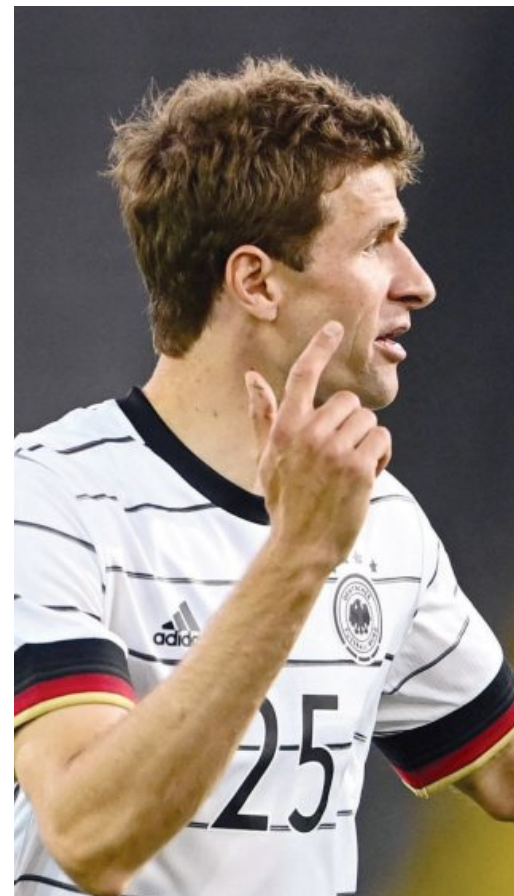
잉글랜드 해리 케인



프랑스 킬리앙 음바페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독일 토마스 뮐러



스페인 알바로 모라타

유럽 축구전쟁 '유로 2020' 코로나 여파 뚫고 12일 개막 ... 31일 간 대장정 시작 잉글랜드 첫 우승이나, 독일·스페인 최다우승이나 ... 호날두 최다골 기록도 관심

잉글랜드 첫 우승? ... 독일·스페인 최다우승? 유럽 축구 국가대표전의 '최고봉' 2020 유럽축구 선수권대회(이하 유로 2020)가 코로나19 여파를 뚫고 12일 개막 파파라와 함께 전 세계 팬들을 환상의 '축구 잔치'로 빠뜨릴 채비를 마쳤다. UEFA는 4년마다 개최해왔던 전통에 맞춰 대회 명칭을 유로 2020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로 2020은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4시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터키와 이탈리아의 A조 1차전을 개막전으로 31일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죽음의 F조... '우승 후보 하나는 탈락한다' 유로 2020 조별리그에서 '죽음의 조'는 단연 F조로 손꼽힌다. F조에는 유로 2016 우승팀 포르투갈을 필두로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인 '전차군단' 독일과 2018 월드컵 우승팀인 '아트사커' 프랑스에 '전통의 강호' 헝가리까지 포함됐다. 최근 메이저대회 챔피언들이 모여 '미리 보는 결승전'에 예상된다.

조 1-2위 팀에만 16강 티켓이 주어지는 만큼 형

가리가 F조 최악채로 손꼽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회 우승 후보 꼽히는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가운데 한 팀은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한다.

반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벨기에에 덴마크(18위), 핀란드(54위), 러시아(38위) 등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들과 묶여 '꿀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도박사들의 선택... '중가' 잉글랜드의 첫 우승 가능성은?

FIFA 랭킹 4위인 잉글랜드는 명성에 비해선 메이저 대회 타이틀 보유가 적다. FIFA 월드컵에서는 1966년 대회 우승이 유일하다. 유로 대회에서는 두 차례 3위(1968년·1996년)가 최고 성적이다.

도박사들은 잉글랜드의 우승에 돈을 걸고 있다.

잉글랜드는 예선 A조에서 체코, 코소보, 불가리아, 몬테네그로와 겨루면서 7승 1패를 거두는 동안 무려 37골을 쏟아내고 단 6실점 하는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잉글랜드는 유일하게 체코에 1-2로 역전패했다.

예선 37골은 벨기에(40골)에 이어 이탈리아(37골)와 함께 다득점 공동 2위다. 여기에 해리 케인(토트넘)은 혼자 12골을 터트리며 포르투갈의 '캡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11골)를 따돌리고 득점 1위를 차지했다.

잉글랜드는 본선 무대에 D조에서 크로아티아(14위), 스코틀랜드(44위), 체코(40위)와 겨룬다. 상대 팀들이 전통의 강호지만 최근 FIFA 랭킹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다 케인과 스털링 등을 앞세운

공격력이 뛰어나다는 게 도박사들의 판단이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배팅업체 배팅 익스퍼트(Betting Expert)는 잉글랜드의 우승 배당률을 4/1로 전망하면서 프랑스(5/1), 벨기에(13/2), 스페인(7/1), 이탈리아(8/1), 독일(8/1), 포르투갈(10/1), 네덜란드(12/1), 덴마크(25/1), 크로아티아(30/1)를 뒤로 배치했다. 낮은 배당률은 우승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다만 배팅 업체마다 차이는 있다. 윌리엄힐은 유로 2020 우승 배당률을 프랑스(9/2), 잉글랜드(5/1), 벨기에(6/1),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이상 8/1) 순으로 정리하며 프랑스의 우승 확률을 잉글랜드보다 높게 봤다.

◇호날두 '기록의 사나이'는 바로 나!'

디펜딩 챔피언 포르투갈의 캡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록의 사나이로 우뚝 선다.

호날두는 유로 대회에서 개인 통산 9골(유로 2004 2골·유로 2008 2골·유로 2012 3골·유로 2016 3골)로 '프랑스 레전드' 미셸 플라티니(9골)와 역대 본선 무대 최다골 타이더. 한 골만 더 넣으면 최다골 신기록이다.

호날두는 또 유로 대회 연속 출전 타이인 '4회 연속 출전'에 역대 첫 4개 대회 연속 득점 기록도 가지고 있다.

조별리그 첫 경기만 치르면 호날두는 역대 최다인 유로 대회 5회 연속 출전 기록을 세운다. 여기에 득점까지 보태면 역대 최다 득점에 역대 첫 5개 대회 연속 득점 기록도 달성한다.

더불어 호날두(예선 포함 56경기 출전)는 이번 대회에서 3경기 이상만 뛰면 잔루이지 부폰(유벤투스)이 보유한 예선 포함 유로 대회 최다 출전(58경기) 기록도 경신한다.

/연합뉴스

장현식, 자세 낮추고 구위 높였다

'필승조' 28경기 30이닝 소화 KIA 투수 중 최다 경기 출전 6월, 노력한 만큼 성과 기대



중심을 낮추니 구위가 살았다.

KIA 타이거즈는 하위권 싸움을 하면서 험난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마음처럼 안되는 시즌이지만 마음 먹은 대로 결과를 만들어가는 선수가 있다. 올 시즌 KIA 투수 중 가장 많은 경기에 나선 '필승조' 장현식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NC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장현식은 새 팀에서 3승 6홀드를 올렸지만 아쉬운 순간도 많았다. 28경기에 나와 11.20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4패도 기록했다.

이를 악물고 새 시즌을 준비한 장현식은 필승조로 활약을 하고 있다.

박준표의 부진 속 전상현이 빠진 불펜에서 2년 차 정해영과 함께 막중한 역할을 맡아 9일 경기 전까지 28경기에 나와 30이닝을 소화했다.

부담 많은 5월을 보내면서 실패도 했지만, 6월 시작은 좋다.

2일 한화 원정에서 5-3으로 쫓긴 무사 1·2루에 출격한 장현식은 볼넷을 내주며 만루 위기에 몰렸지만, 무실점으로 이닝을 정리했다. 귀한 홀드로 이의리의 승을 지켜준 장현식은 4일 LG전에서도 8회를 무실점으로 막고 끝내기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장현식은 "중심을 낮게 바꿨는데 거기에 중점 뒤서 연습하고 시합 때 신경 쓰니까 제구도 되면서 공이 좋아지는 것 같다"며 "메이저리그 투수들을 보면 모두 중심이 낮다. 내 폼은 많이 나아져서 제구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다. (중심을 낮추는) 시



장현식

도해봐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해봤는데 결과가 괜찮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심의 변화가 구위는 물론 제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장현식은 "중심 낮추고 나서는 제구가 많이 흔들리는 게 없어진 것 같다. 볼넷 신경 안 쓰고 리듬을 맞추면서 이 부분을 중점 두고 하나씩 제구도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감이 더 붙었다.

장현식은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다. 처음이라 잘 모르고 던졌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다. 공 개수가 많이 줄었다. 빨리빨리 승부가 되니까 힘든 것도 줄었다"며 "(무사 만루에서도) 그냥 가운데 보고 던졌다. 아무 생각 없이 가운데 보고 던졌다. 하다 보니까 상대가 스윙을 했

다. 두 아오되는 순간 똑같이 하면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막게 됐다"고 웃었다.

하지만 매일 희비가 엇갈리는 마운드에서는 만큼 '초심'이 장현식에게 중요한 단어다.

장현식은 "잘 막고 다음 이닝을 던질 때 선두타자와 결과가 안 좋았다. 끝났다고 생각 안 하고 계속 긴장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 전 이닝과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올라가니까 힘 풀린 느낌도 없고 잘 막게 되는 것 같다"며 "막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긴장을 유지해야 몸도 반응이 오고 똑같이 던질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 마운드 밖에서도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다.

비시즌에 일요일을 빼고 매일 6-7시간 훈련을 하며 달렸던 장현식은 지금도 똑같이 운동하고 있다.

장현식은 "몸을 움직여야 확실히 올라오는 스타일이다. 겨울에 했다고 해서 평소엔 안 하면 안 좋아져서 계속 운동 한다"며 "전날에 어떻게 쉬느냐 어떻게 자느냐도 중요하다. 다음날 컨디션 유지에 확실히 영향이 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자려고 한다. 또 밤늦게 안 먹으려고 한다. 먹는 날과 안 먹는 날 컨디션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잘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6월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장현식은 "개인적으로 6월에 괜찮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또 다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안 아프고 다들 잘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토틸 시즌 '최고 골 톱10' 손흥민의 득점포 3골 포함 아스널전 감아차기 골 2위

손흥민(29)이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틸넘이 꼽은 2020-2021시즌 '최고의 골 톱10' 중 3골을 차지했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дер비에서 터뜨린 멋진 감아차기 골이 2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토틸넘은 9일(한국시간) 공식 채널에서 '이번 시즌 최고의 골 톱10'을 영상으로 정리했다. 2020-2021시즌 토틸넘을 빛낸 골 장면이 10위부터 1위까지 차례로 소개됐다. 이 중 손흥민의 득점포가 3골이나 포함돼 토틸넘 공격의 핵심임을 재확인했다.

간발의 차로 1위는 농축이나 지난해 12월 7일 아스널과의 프리미어리그(EPL)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나온 선제 결승 골이 2위에 올랐다.

당시 손흥민은 전반 13분 해리 케인의 침투 패스를 받아 왼쪽을 파고들다가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과감한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을 반대편 골대 상단 구석에 꽂아 리그 10호 골을 넣었다.

그다음으로는 지난날 3일 세필드 유나이티드와의 EPL 34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32분 터뜨린 썩기 골이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스테판 베르흐메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간결한 볼 터치로 상대 수비를 제친 뒤 오른쪽 인사이드 슈팅을 반대편 골대 상단 구석에 찔러 넣었다. 손흥민의 리그 16호이자 공식전 21호 골이었다.

사우샘프턴과의 2라운드에서 나온 손흥민의 시즌 첫 골은 10위에 자리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무려 4골을 몰아쳤는데, 전반 추가시간 1-1 동점을 만든 첫 번째 골이 순위에 들었다. 케인이 왼쪽에서 넘겨준 패스를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마무리해 개인 EPL 첫 헤트트릭 작성의 발판을 놔다.

1위는 EPL 전체 2020-2021시즌 최고의 골로 선정됐던 에릭 라멜라의 EPL 28라운드 아스널전 라보나키 선제골에 돌아갔다. /연합뉴스